경북일보 01월 18일 007면

지하철 1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

대곡~명덕 2.3㎞

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1호선 연장(대곡~명덕, 2.3㎞)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.

사업비 1천900억원이 투입되는 1호선 연장은 금년 3월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.

지하철 건설본부 관계자는 화원 · 명곡일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제증 심화와 테크노폴리스 및 현풍 신도시 조성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호선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이에앞서 지난 2004년 9월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곡명곡간 연장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다.

박무환기자
pmang@kyongbuk.co.kr